Nature, Our Future!

오대산 국립공원

ODAESAN NATIONAL PARK

7.소금강계곡

오대산의 일곱 번째 이야기

소금강계곡

1970년 명승 제1호로 지정된 소금강은 예로부터 수려한 기암괴석과 맑은 폭포, 소(沼) 와 담(潭)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풍광이 빼어나며 그 모습이 마치 작은 금강산 같다고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소금강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청학이 날개를 편 듯한 형상이라 하여 청학산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소금강 명승 제1호 지정 비석

소금강계곡

황병산(1,407m)을 중심으로 남동쪽으로는 매봉(1,174m)과 천마봉, 북동쪽으로 노인봉(1,338m)과 백마봉(1,094m)에 둘러싸인 'ㄷ'자 모양의 계곡입니다. 원래 소금강은 무릉계를 경계로 내·외 소금강으로 구분되었으나 입구쪽의 외금강 지역이 일제강점기 때의 무자비한 남벌로 주위 경관이 크게 훼손되어 요즘은 무릉계 안쪽 내금강만을 소금강계곡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탐방 거리 및 시간 (편도 9.4km 6시간)

무릉계	식당암	구룡폭포	만물상	백운대	낙영폭포	노인봉
	1.6km	0.7km	1.2km	0.5km	3.0km	2.2.km
	30분	30분	30분	20분	1시간 40분	2시간 30분

소금강 계곡의

아름다운 명소

무릉계



무릉계는 소금강 입구로 화강암 지대의 기암절벽과 폭포와 소가 있어서 절경을 이룹니다. 옛날 중국의 무릉도원(武陵桃源)과 같다고 하여 이름을 무릉계로 지었다고 합니다. 계곡 주변에 산복숭아나무와 산벚나무가 많아 봄에 꽃이 만발할 때는 문자 그대로 신선이 사는 무릉도원 같은 절경이었다고 전해지며, 1936년의 물난리*로 복숭아나무와 산벚나무들이 떠내려가서 현재는 이름만 남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병자년 포락이라 일컬음

천하대


천하대 각인

무릉계 주변의 화강암 반석에 천하대(天河臺)라고 새겨진 글씨를 볼 수 있습니다. 계곡 양쪽에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또 그 빛이 계곡물에 비치면 은하수처럼 아름답다고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십자소


십자소 근경

무릉계에서 연화담으로 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절벽이 열십자(十) 모양으로 깊게 갈라져 만들어진 소입니다.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서 천사, 독수리, 불가사리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연화담



소금강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연못으로, 하늘에서 7선녀가 내려와 목욕하고 오른편 명경대에서 화장을 하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소의 하류에는 돌거북이 기어 올라오는 모습과 머리 앞에 연꽃 봉우리 모양의 돌이 있고, 그 왼편에 선녀가 두고 간 족두리가 변하여 된 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 형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연화담에 관해서는 연꽃의 모습을 닮았다거나, 옛날 이곳에 연꽃을 띄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식당암

신선이 피리를 불며 구름을 타고 넘었다는 촉운봉 아래 계곡 왼편에 형성된 화강암 반석으로, 수면에서 7m 높이에 1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마의태자가 아미산성에서 군사를 훈련할 때 군사들이 식사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율곡 이이는'유청학산기'에서 식당암을 비선암(飛仙巖)으로 개명하고, 골짜기를 천유동(天遊洞)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또한 바위 절벽 밑에 있는 못을 경담(鏡潭)이라 하고 산 전체를 청학산(靑鶴山)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또 이곳에는 제인대(蹄仁臺)란 글이 새겨져 있는데 '어진 사람의 발자취를 남겼다.'는 뜻으로 율곡 이이의 친필이라고 전해지나 문헌상의 기록은 없습니다. 식당암 한쪽 모퉁이에 청학산, 천유동, 비선암, 경담이 차례로 새겨져 있습니다.


식당암


청학산 천유동 비선암 경담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2
033) 332-6417

FSC PRINTED WITH SOY INK

환경부 |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소금강 계곡의

아름다운 명소



이능암

오대산 금강사(金剛寺) 앞에 글자가 많이 새겨진 바위로 이능계라는 글자가 가장 잘 보여 이능암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각자 중 첫 번째는 '이능계(二能契)'라는 글자 와 그 밑으로 나열된 26명의 이름 입니다. 이능계는 술과 시에 능했던 사람들의 모임 이라는 의미입니다. 왼쪽에는 '을해 추(乙亥 秋)'라 새겨져 있어 을해년 가을에 새긴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강(小金剛)'과 그 밑으로 새겨진 일련의 날짜입니다. 소금강이라는 글씨는 율곡 이이의 친필이라고 전해지나 율곡 이이는 이곳을 소금강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부터 다섯 번째는 '벌창계(筏暢契)', '영춘대(詠春臺)' 와 '회남계(會南契)'라 는 글자와 그 밑으로 나열된 명단으로, 명단은 그 모임을 속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추정됩니다.

율곡 이이의 '유청학산기'

〈유청학산기〉는 1569년 율곡 이이가 벼슬을 그만 두고 조모님을 뵈러 강릉에 왔다가 향리 사람들과 함께 소금강을 기행하고 남긴 여 행기로 율곡전서 제13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소금강 의 예전 지명인 청학산을 제목으로 삼고 있으며 소금강계곡 곳곳의 명소에 관한 이름이 비교적 자세히 언급되어 있어 소금강의 빼어난 경관에 대한 중요한 기록 유산입니다.



유청학산기(한국고전번역원)

삼선암



금강산의 삼선암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3개의 바위 봉우리에 신선이 산다고 전해집니다.

극락고개



삼선암에서 세심폭포 사이에 있는 바위 절벽으로, 예전에는 절벽 중간에 난 작은 오솔길로 다녔는데 길이 좁기 때문에 발을 조금만 헛디뎌도 절벽 아래로 떨어져 극락으로 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구룡폭포

소금강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구룡소(九龍沼)에서 나온 아홉 마리 용이 폭포를 하나씩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폭포 맨 위에 있는 폭포가 상팔담(上八潭) 인데 아홉 개 가운데 제일 작습니다. 상팔담 바위에는 깊이가 1m, 지름이 40cm 정도가 되는 구멍이 파여 있는데 이곳을 사형대라고 합니다. 마의태자가 휘하의 군사들이 군율을 어기면 이곳에서 사형을 집행했다고 전해집니다. 6번째 폭포는 구룡폭포 중 가장 아름답다고 하여 군자폭이라 부릅니다.



세심폭포

청심대에서 이 폭포의 물줄기를 바라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하여 사심이 없어지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씻겨져 신선의 경지로 들어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세심폭포



청심대

청심대

세심폭포와 구룡폭포가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약 30m 높이의 청심대가 있습니다. 청심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사심이 없는 맑은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라 군사들이 산성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을 때 군사의 아내들이 남편을 만나러 멀리에서 왔다가 자신 때문에 남편의 마음이 흔들려 일을 그르칠까 염려되어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이곳 청심대에서 몸을 던졌다고 전해집니다. 목숨을 던진 부인들의 깨끗하고 숭고한 마음이 깃든 곳이라 하여 청심대라 부른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미산성(아야산성)

구룡폭포 위쪽에 있는 돌로 쌓은 성으로, 아야산성, 만월성, 금강산성, 청학산고성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부르다가 최근에는 아미산성을 한자로 기록하면서 아미산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산성은 신라의 마의태자가 쌓았다고 하나 근거는 없습니다. 고려 충숙왕의 사위인 최문한의 아들 최극임이 의병을 이끌고 쌓았다고도 전해집니다.

아야산성이라는 이름은 마의태자가 군사를 훈련할 때 고려군이 쳐들어와서 신라군이 돌을 굴렸고 그 돌을 고려군이 맞고 '아야 아야' 했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만물상 – 일월암

이름이 뜻하는 대로 주위에 귀면암, 촛대석, 일월암, 탄금대 등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기묘한 형태의 바위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물상의 대표 형상은 얼굴 모양의 귀면암인데 보는 각도나 마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귀면암 오른쪽에 둥근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이곳을 일월암이라고 합니다. 달이 떴을 때는 해처럼 보이고, 해가 떴을 때는 달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 구멍으로 해나 달이 뜨는 것을 보게 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만물상 앞 너럭바위는 선녀가 악기를 연주한 곳이라고 하여 탄금대라 부릅니다.



백운대



만물상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면 화강암 너럭바위 위에 큰 바위가 작은 돌을 받침으로 삼고 서 있습니다. 이 너럭바위 위로 물이 흘러 내리면 비단을 깔아 바람에 날리는 듯 빛이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입니다. 무겁고 웅장한 바위가 작은 돌을 받침으로 삼아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이 신비롭습니다.

참고문헌
(국립공원연구원, 2013, 오대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오대산국립공원, 2018,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곳 오대산국립공원)

제작 담당
자연환경해설사 김재부
감수·국립국어원 교수 김주미

소금강 안에 담긴

오해와 진실

율곡 이이가 불렀던 진짜 이름은?

소금강을 소개하는 여러 자료에서는 소금강이 청학동으로 불리다가 율곡 이이가 〈유청학산기〉에서 아기자기한 모습이 마치 금강산을 축소하여 놓은 것 같다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곡 이이의 〈유청학산기〉에 '소금강'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1725년 청학동을 유람하고 지은 〈〈입재유고(立齋遺稿)〉〉 권1 오언고시조에 '세속에서는 청학(동)을 소금강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여지도서(輿地圖書:1757~1765년)〉〉 강릉조 산천 항목에도 '세간에서는 청학동을 소금강이라 칭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는 청학동의 속칭으로 불리다가 현대에 본 이름으로 정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재유고출처(한국고전번역원)



청학동구룡연기출처(한국고전번역원)

'구룡연'은 미수 허목의 글씨?

구룡폭포의 8폭 바위에 새겨진 구룡연(九龍淵)이라는 전서체의 글씨는 조선 중기 전서체의 대가인 미수 허목이 썼다고 알려져 있지만, 미수 허목이 남긴 기언 권28 '청학동구룡연기(靑鶴洞九龍淵記)'에 '그 암석 위에 기자(奇字)로 구룡연이라고 크게 쓰여 있다.'고 기록된 것으로 봐서 허목의 글씨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청학동구룡연기를 제대로 보지 않고 전서체 글씨와 전서체의 대가인 미수 허목을 관련지은 오류로 추정됩니다.



구룡연 각인

아미산성을 정말 마의태자가 쌓았을까?



마의태자가 아미산성을 쌓았다고 하지만 문헌적 근거는 없습니다. 율곡 이이의 〈유청학산기〉에도 이이가 이 성을 누가 언제 무슨 목적으로 쌓았는지 이름이 뭔지도 모른 듯 단순히 고성(古城)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의 축성 방식이 고구려 방식이어서 신라의 마의태자와 연결 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소금강이란 이름을 금강산에서 따올 때 마의태자 전설이 함께 끼어든 것으로 추측됩니다.